해부 · 생물인류학 제 36 권 제 4 호
Anat Biol Anthropol Vol. 36, No. 4 (2023) pp. 181~195
https://doi.org/10.11637/aba.2023.36.4.181

Check for updates

Original Article

조선시대 고고학 발굴지에서 출토된 조선시대 인골의 특수한 매장 정황에 대한 법의고고학적 분석

김명주[1,†], 민소리[2,†], 김이석[3]

[1]단국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2](재)누리고고학연구소, [3]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Forensic Archeological Analysis on Human Remains from the Peculiar Burial Situation of Archaeological Excavation Site in Joseon Dynasty

Myeung Ju Kim[1,†], So Ri Min[2,†], Yi-Suk Kim[3]

[1]*Departments of Anatomy, Dankook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2]*Nuri Institute for Archaeology*
[3]*Catholic Institute for Applied Anatomy, Department of Anatomy,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bstract : The process of recovery and restoration at the archaeological site is excavated by applying the theory and principles of archaeology, but when human bones are discovered, a forensic analysis called “forensic archaeology” should be conducted. Applying archaeological techniques to forensic sites allows all the processes to be carried out systematically and scientifically collected geographical and environmental information around the site to help interpret events. But, so far, even if human bones are found in archeological sites, excavations and field analysis through the forensic archaeology approach have not been conducted yet. The Hanul Cultural Heritage Research Institute excavated in eight areas from 2009 to 2011, including human bones excavated from the well side of the Japanese colonial era at Cheong-Jin district, 12-16 area and human bones excavated under the floor at 150 area. All of the human bones excavated in this study were excavated from the 5th floor (V floor), the mid-Joseon period layer. During the Joseon Dynasty, this area was a commercial and residential area where street vendors and government offices were concentrated. Thus, these were an area that was archaeologically unpredictable to find human bones. Moreover, each bone was found at the well and beneath floors, respectively, and due to its special archeological situation, several distorted interpretations of the burial process were divided on the spot. Therefore, in this study, the human bone under the well and the floor was regarded as the bone placed in the forensic situation, and

[†]These authors contributed equally to this work.

저자(들)는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저자(들)는 이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Received: November 17, 2023; **Revised:** December 5, 2023;
Accepted: December 13, 2023

Correspondence to: 김이석 (가톨릭응용해부연구소, 가톨릭의과대학 해부학교실)
E-mail: jwkiss@catholic.ac.kr

www.kci.go.kr
© 2023 Korean Association of Physical Anthropologist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 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2671-566X (Online)

then the forensic archaeological analysis of the human bone was attempted to correctly explain the burial process of ancient human bones through literature and forensic analysis.

Keywords : Archaeology, Forensic archaeology, Human bone, Joseon Dynasty, Well, Floor

서 론

고고학자들은 발굴 현장에서 과학적인 기법들을 동원하여 유물 및 유구를 수습하고 복원함으로써 당시 사회문화적 삶을 도출하고자 한다[1]. 고고학은 미국에서 인류학보다 더 큰 학문의 일부로서 인류학은 인류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연구 분야이다[2]. 고고학의 근본 전제는 인간의 행동이 양식화(pattern)되어 있고, 유적지에 남겨진 유물들은 그 행동들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양식들을 통해 인간 활동의 재구성이 가능하므로, 사물들 간의 관계와 환경은 사물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3]. 이는 고고학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사진, 지도, 노트 등을 통해 유적 발굴을 기록하는 세부적 방법들을 만들고 전승해 온 이유이다. 고고학자들의 이론과 경험은 발굴된 유적과 유물들의 수습과 복원에 활용하며, 이후 발굴 인골 등에 대해 현장에서 법의학적 해석이 필요하면 전반적 인골 분석을 하는데 이를 법의고고학(forensic archeology)이라고 한다[4].

법의고고학은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왔고, 특정 분야의 학문으로 간주되어 왔는데 일반적으로 “고고학적 이론, 원칙, 방법 및 기술을 법적인 맥락에서 적용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5]. 이 정의에서 “법적 맥락”은 중요한 문구로 발굴의 주요 목표가 그 주 역할이 희생자 식별 및 사망 방식 평가에 대한 것을 제공하는 것이지, 형법, 의료법, 인도주의 또는 민법 설정을 벗어나는 역사적인 집단 묘지, 전쟁터 또는 처형 장소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은 아니다는 것이다[5]. 즉, 법의고고학은 단순히 인체 유해를 발굴하는 것 이상의 것으로 실종 및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한 수색, 표면에 흩어져 있는 인체 유해의 수색, 화재 현장으로부터의 수습, 공간적(GIS 기반) 기록, 증거 보존, (사후) 퇴적 환경 분석 및 해석 및 재구성에 활용할 수 있으며, 더 광범위하게는 법의고고학자들은 매장(혹은 도난) 유물, 무기 또는 기타 물품의 회수와 관련된 범죄 조사에 참여하며 역사적 유물의 불법 거래 같은 것도 참여한다[5].

특히 발굴 현장에서 인골이 발견되었을 때, 고고학 기법을 적용하면 발굴과 복원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사건 해석에 도움을 주는 현장 주변의 지리 정보 및 환경 정보를 과학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6]. 또한, 희생자와 함께 발굴된 물품의 법의학적 사건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으며 발굴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토양정보 등을 이용하여 매장의 전후 과정을 추정할 수 있다[6]. 그런데 현재까지 법의학 현장에서 사람뼈가 발견되었을 때 그 뼈에 대한 법의인류학적 분석은 많이 이루어졌으나 법의고고학적 접근을 통한 발굴 및 현장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어떤 법의학 현장도 마찬가지겠지만, 법의학 현장에서 인골을 발굴할 때는 해부학적 배치와 자세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중요하다. 이런 해부학적 연속성을 통한 뼈의 정렬을 분석하여 1차매장과 2차매장을 구분하는 것은 법의인류학자의 주요 감정업무 중 하나인데 발견 당시 뼈들이 자연스러운 해부학 관절을 이루며 배치되어 있다면 1차매장으로 구분하고, 그렇지 않거나 1차매장이 이루어졌던 곳에서 옮겨진 흔적이 보인다면 2차매장으로 구분한다[7]. 조선시대 회곽묘는 대표적 1차매장에 해당하며, 조선시대 중기까지 이루어졌던 비유교식 매장법 중의 하나인 화장, 초분 그리고, 풍장 등이 2차매장에 해당한다[8].

한편, 요즈음 조선시대 인골의 인류학적 분석이 활발히 시도되고 있다. 특히, 고인골의 경우 뼈의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뼈가 묻힐 당시에 이루어졌던 매장법에 대한 고고학적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데, 조선시대 매장법은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크게 전기와 후기로 그 양상이 나누어진다. 조선시대 전기는 유교식 상례가 통용되기 전으로서 전통 민간신앙과 불교의 영향을 받아 여러 가지 의례 양식과 매장법들이 혼재한 시기였다. 따라서 당시 유교식 상례에 대한 사회적 압박은 조선시대 후기사회에 비해 덜하였으며, 이는 특히 조선 전기의 민가의 다양한 사체 수습 양식으로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반면에 후기에 들어서는 기존의 다양했던 의례 양식들이 성리학적 체계 아래 통일되면서 유교식 매장법인 회곽묘가 주를 이루게 된다[8,9].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지금의 종로1가에 해당하는 청진지구에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었고, 이곳에서 옛 한양 도심의 흔적이 발견되어 정식적인 유적발굴조사가 시행되었다. 조사가 진행되던 중에 조선시대 인골 2구가 출토되었는데, 조선시대 이 지역은 당시 시전행랑과 관청이 밀집해 있던 상업지 및 거주지로써 고고학적으로 인골의 발견을 예상할 수 없었던 지역이었다. 더욱이 각각의 뼈대가 우물가와 집의 마

www.kci.go.kr

루 밑에서 발견되어 그 특수한 발굴현장의 상황으로 인해 매장 정황에 대한 여러 왜곡된 해석들이 분분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물가와 마루 밑의 인골을 법의학적 상황에 놓인 뼈로 간주한 후, 현장에 대한 법의고고학적 해석 및 인골에 대한 인류학적 분석을 시도하여 고인골의 매장과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고고학 발굴현장의 특수한 매장상황에 대한 법의고고학적 접근의 유용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고고학적 발굴

본 연구의 재료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재)한울문화재연구원에서 조사한 청진 12-16지구 유적 76번지 일대에서 발굴한 우물가의 인골 1구와 8지구 150번지 일대에서 발굴한 마루 밑의 인골 1구를 포함해 총 2구의 인골을 대상으로 하였다(Fig. 1, Table 1). 12-16지구 인골은 주변에서 우물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고, 8지구의 인골은 탄화된 흔적이 있는 마루바닥 아래에 위치하였으며, 그곳에서 직접 발굴되었다(Fig. 2). 레벨 기준점 이하 유구 및 유물이 확인되는 층을 각 시대별 문화층으로 정의하고 표토층에 가장 가까운 층부터 제 1문화층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레벨 기준점은 8지구에서는 따로 현지표상 높이에 대한 기록을 찾지 못하여, 근방인 청진 6지구에서 적용한 해발 31.32 m를, 12-16지구에서는 해발 30.3 m로 이것을 현지표상의 높이로 간주하였다. 이 레벨 기준점 높이부터 총 6개의 문화층과 1개의 자연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 1층은 19C 말에서 20C까지의 근·현대층으로 8지구에서 해발 28.4~29.5 m에, 12-16지구에서는 해발 29.7~28.5 m에 해당한다. 2층은 19C 조선시대 말기로 8지구에서는 해발 27.8~28.4 m에, 12-16지구에서는 해발 27.8~29.5 m에 해당한다. 3층은 18C 조선시대 후기로 8지구와 12-16지구에서 모두 해발 27.0~27.8 m, 4층은 17C 조선시대 중기로 8지구, 12-16지구 모두 해발 26.6~27.0 m까지 해당하며, 5층은 16C를 포함하는 조선시대 전기로 해발 26.2~26.6 m이다. 6층은 조선시대 초기층위로 해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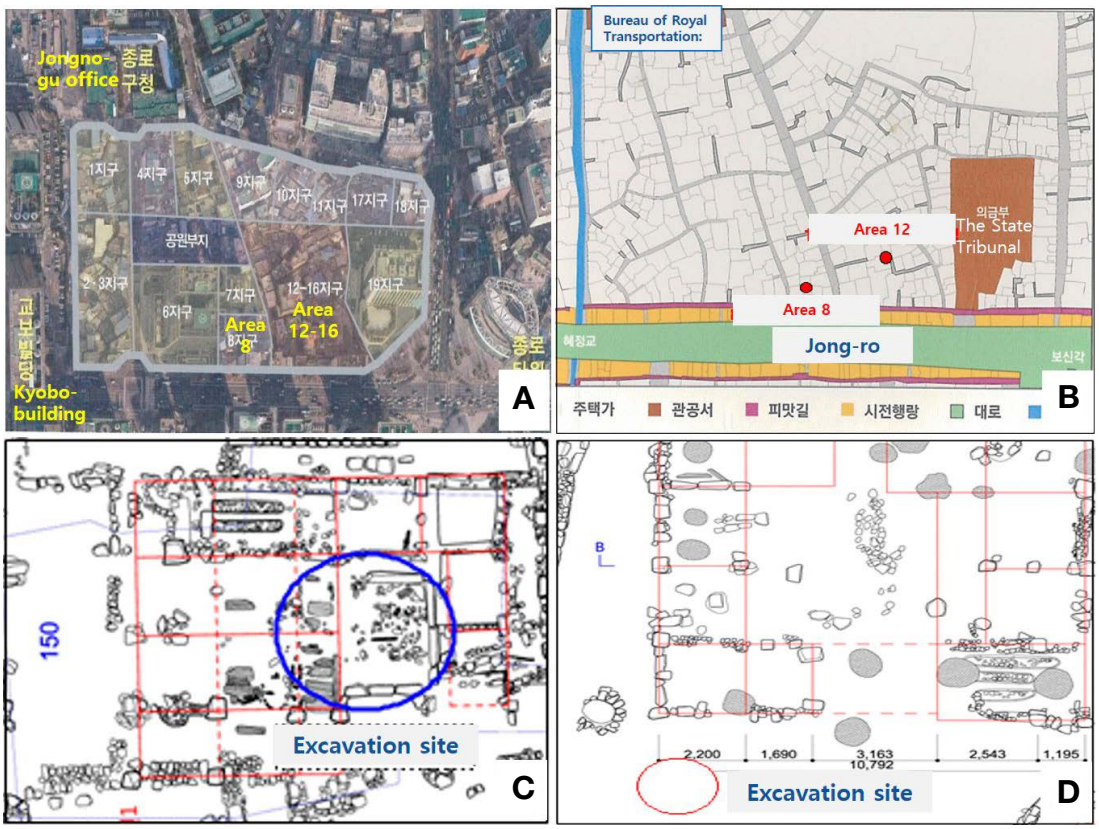

Fig. 1. All the human bones were excavated in the area of Chung-Jin. A: Chung-Jin's divided sectors are shown as bird's-eye view image. B: Two red dots in the map showing the Chung-Jin area is denoted the site where the human remains were excavated. C: Blue circle in the excavation sketch of the 8th district denotes the skeleton excavation site. D: Red circle in the excavation sketch of the 12-16th district denote the skeleton excavation site.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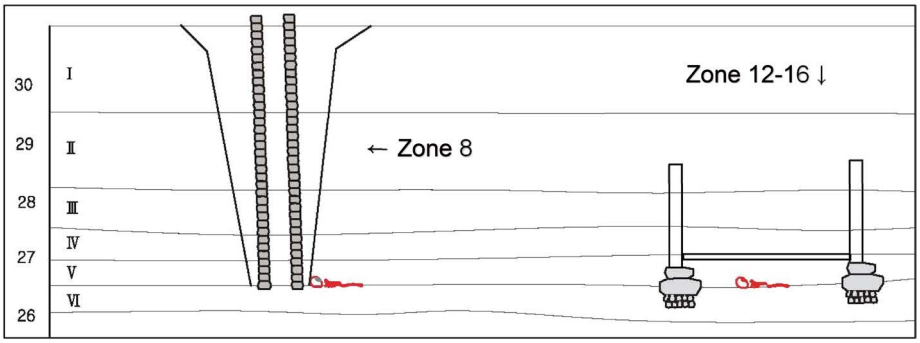

Fig. 2. Schematic diagram indicated the zone where skeletal remains were excavated. Numbers in left column indicate the altitude as meters.

Table 1. Information of skeletal remains

Excavated zone at Cheoungjin area	Street number	Excavation character	Stratigraphic layer
Zone 12-16 (12-16 Ji-gu)	76	Remain recovered from one well side	5 Mun-hwa layer (Culture Layer5)
Zone 8 (8 Ji-gu)	150	Remain recovered from under the burnt floor	5 Mun-hwa layer (Culture Layer5)

Table 2. Stratigraphy information of a Chung-Jin excavation area

Stratigraphic layers	Era	Zone 12-16 (m)	Zone 8 (m)
1 Mun-hwa layer (Layer1)	Modern and present age (late 19C~early 20C)	Altitude of 29.7~28.5	Altitude of 28.4~29.5
2 Mun-hwa layer (Layer2)	Mixed with Japanese colonial era and the late Joseon 19C	Altitude of 27.8~29.5	Altitude of 27.8~28.4
3 Mun-hwa layer (Layer3)	The late Joseon 18C	Altitude of 27.0~ 27.8	
4 Mun-hwa layer (Layer4)	The middle Joseon 17C	Altitude of 26.6~27.0	
5 Mun-hwa layer (Layer5)	The early Joseon 16C	Altitude of 26.2~26.6	
6 Mun-hwa layer (Layer6)	The beginning Joseon	Altitude of 25.8~26.2	
Natural layer (Layer7)		Below 15.8	

25.8~26.2 m까지이며 해발 15.8 m 이하는 자연적인 층위에 해당한다.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2구의 인골은 이 중 조선시대 전기층인 5층(V층)에 해당한다[10] (Table 2). 또한 청진 12-16지구 V문화층 건물지 5-11호에서 만력 19년(1591년) 총통이 출토되었고, 청진 8지구 130번지 다 건물지 V-6건물지에서 1587년 제작된 것임이 확인되는 소송자 총통 1점과 16세기로 편년할 수 있는 자기편들이 다수 발굴되었으므로[10] 청진 12-16지구와 8지구에서 V문화층은 16세기 무렵의 조선시대 전기 층위임을 더욱 확증할 수 있었다.

발굴과정에서 인골이 확인되었을 때 발굴 전 주변 상황과 발굴 진행과정을 DSLR사진기로 촬영을 하였다. 인골이 잘 보이도록 붓으로 흙을 털어 낸 후 1:1 Scale인 방안지를 이용하여 실측한 기록을 남겼다. 실측 시 격자를 이용하였으며 발굴이 이루어진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하며 현장상황을 그림으로 기록하였다. 뿐만 아니라 발굴이 일어난 장소의 환경적 특징과 발굴을 수행한 사람들에 관해서도 문서로 남겨두

www.kci.go.kr

었다. 발굴된 물품이 속했던 층위들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가장 위 층부터 걷어내고, 작은 치아나 뼈들이 빠지지 않도록 1.4인치 강철체판(wire mesh)에 걸러서 발굴 현장에 남겨지는 것이 없도록 확인하였다. 인골은 땅 속에서 오랫동안 매장되어 부식작용이 진행되므로 수습과정에서는 부서지기 쉽다. 따라서 수습 시 손상이 덜 가도록 대나무 칼, 플라스틱 주걱(spatula), 가는 붓 등의 섬세한 도구를 이용하여 뼈에 큰 움직임을 가하지 않고 묻어 있는 흙을 조심해서 제거하면서 채취한다. 이때 뼈의 각 부분이 전체 인골에서 어느 부위인지 그 해부학적 위치를 염두에 두고 수습에 임하였고 문서로 기록해 두었다.

2. 조선시대 매장법 문헌 고찰

조선시대 중기 이전까지 무속과 불교의 양식을 따른 다양한 형태의 매장양식이 혼재하였음을 알아보기 위하여 조선왕조실록의 기사들을 찾아보았으며 회곽묘가 출현하기 이전의 한국의 상례문화와 그 변화추이를 김시덕의 한국의 상례문화[8]와 박태호의 장례의 역사[9]를 통해 고찰하였다. 조선왕조실록의 기사는 디지털 포맷으로 인터넷상에서 이용가능하였으므로 국문으로 번역된 내용과 함께, 원문들을 찾아볼 수 있었으므로 다수 참고하였으며 검색전략은 다음과 같았다. 김시덕의 상례문화[8]와 박태호의 장례의 역사[9]를 통하여 당 시대의 시대상황을 고찰 후 관련된 검색어를 마련하여 조선왕조실록 기사로서 확인하였다. 검색어로는 '매장', '시체', '가묾', '원단', '화재'와 '역질(역병 및 돌림병)'을 단독으로 혹은 짝을 지어 입력하여 검색되는 모든 기사를 검토함으로써 당시 매장상황 및 사후 수습과정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반복되는 내용들은 전체 기사 중 조선 전·중기 시대의 기사가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하여 내용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시대적 특징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판단하였다. 조선시대 회곽묘 매장양식이 전·중기 이후 얼마나 일반적인 장례절차로 간주되었으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지 이해하기 위해 김우림의 국조오례의와 주자가례를 통해본 조선시대 묘제 연구[10], 안호용의 유교 상례와 상중의 개인행위 규제[11] 그리고 조길환의 조선의 상장과 회격[12]을 참고하였으며 어원선[13] 과 민소리의 학위논문인 조선시대 사대부 회곽묘 연구[14]에서 서울·경기지역의 조선시대 중·후기 회곽묘 연구를 참고하였다.

3. 법인류학적 분석

청진 12-16지구와 8지구에서 수습된 두 구의 인골을 대상을 뼈의 해부학적 구성을 조사하였으며 법의인류학적 신원확인과정을 통해 개인식별을 시도하였다. 계측은 미국 법과학회 체질인류학 분과에서 제시한 사람뼈의 데이터구축 표준화 방법[15]에 따라 디지털밀림자(Digimatic Caliper, Mitutoyo, Japan)를 이용하여 시행되었다. 연령추정은 12-16지구 인골의 경우 머리뼈의 보존 상태가 특히 양호하여 Lovejoy와 Meindle의 머리봉합닫힘방법(1985)을 사용하였고, 8지구 인골은 머리뼈의 보존상태가 열악한 반면, 남겨진 치아가 있었으므로 Lamendin이 정리한 법치의학연령추정공식(1992)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16,17]. 신장은 12-16 지구 인골의 경우 형태가 온전한 위팔뼈(humerus)를 이용하여 Trotter가 제안한 아시아 남자 신장추정 공식(1970)을 통해 추정하였다[18]. 단, 8지구의 인골은 신장을 추정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를 가진 온전한 뼈가 남아있지 않아 직접적인 추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골절된 상태의 위팔뼈 몸통(humeral shaft)의 부분 계측값을 Mohanty 등이 제안한 위팔뼈 최대 길이 산출공식(2012)에 적용하여 위팔뼈의 최대 길이를 산출하고[19] 그 길이를 이용하여 Trotter가 제안한 공식(1970)을 통해 추정하였다[18]. 12-16지구 인골의 성별추정은 Buikstra와 Ubelake가 제안한 머리뼈의 목덜미능선(nuchal crest), 꼭지돌기(mastoid process), 눈확위모서리(supraorbital margins), 눈썹활사이융기(prominence of glabella) 그리고 턱끝융기(mental eminence)에 대한 형태분석방법(1994)을 이용하였다[15]. 이와 함께 12-16지구의 인골은 위팔뼈의 상태가 특히 양호해 Rosers가 제안한 성별에 따른 위팔뼈 먼쪽 안쪽위관절융기(distal humeral epicondyle)의 형태적 특징(1999)을 이용하여 성별추정을 한 번 더 시도해 성별추정의 신뢰도를 높였다[20]. 8지구 인골의 경우 머리뼈의 봉합선이 상태를 추정할 수 없을 정도로 골절 및 사후변성이 되어 성별추정이 불가능하였다. 단, 아래턱뼈(mandible)는 몸통의 일부 골절 외의 다른 손상은 없어 보존상태가 좋았고, 특히 성별추정에 의미 있는 턱끝융기(mental eminence)의 관찰이 가능해 Buikstra와 Ubleaker가 제시한 형태적 특징(1994)을 이용한 성별추정을 하였다[15]. 이와 함께 아래턱뼈에서 계측가능한 항목들의 계측값으로 성별에 따른 계측항목들의 남녀 판별(sex sectioning points) (2000)을 활용해 성별추정의 신뢰도를 더 높일 수 있었다[21]. 1차, 2차매장 양상에 대한 추정은 인골의 발견 당시에 관절이 해부학적 연속성을 이루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였으며, 관절이 연속성을 이루고 있지 않거나 1차매장된 상태에서 인골이 옮겨진 흔적이 보일 때는 2차매장으로 구분하였다[1,7].

결 과

문헌들에 따르면 조선시대 매장법은 중기 이전까지 무속,

www.kci.go.kr

풍수, 불교에 관한 여러 형태의 매장형식이 혼재되어 있는 '과도기적 혼합문화 양상'이었다[8]. 형편이 안 되는 민간에서는 묘를 쓰지 못해 화장을 하거나 사체를 버려 두는 경우도 있었으며[9], 조선왕조실록에는 종교와 연관되어 조선초기에는 민가에서 무속을 따르는 장례로 가산을 탕진했다는 폐해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이와 함께 민가에서 행해지는 비유교식 상례를 예에 어긋난다고 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상소 기록 또한 조선왕조실록의 여러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8]. 그중 세종 22권, 5년 12월 20일(정묘) 4번째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사람이 역질(疫疾)에 걸려 죽으면, 혹은 산간에 갖다 놓고 풀로 덮어 장사하고, 혹은 싸서 나무 가지에 매달아 두었다가…, 지금 어느 마을 어느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향도(香徒)들과 결탁하여 매장하게 하는데, 자손이 있고 부유한 집의 장사에는 다투어 모여들어 묻어주고 있으나, 자손도 없고 가난한 집 장사에는 내버려두고 돌아보지 않아서, 혹은 산화(山火)에 사체(死體)가 타기도 하고, 혹은 호리(狐狸)가 뜯어 먹기도 하여, 화기(和氣)를 손상하게 하오니, 원컨대, 이제부터는 곤궁한 사람의 장사도 전부 향도에게 붙여, 이를 감독하여 매장하도록 할 것이며…*'

세종 122권, 30년 11월 18일(경자) 2번째 기사는 위와 유사한 맥락의 내용을 포함한다. 예조에 전지하기를,

"*…드러난 사람뼈와 짐승뼈를 묻어 주고, 기한이 지나도록 장사하지 아니함을 논죄하는 법은《육전(六典)》에 실려 있는데, 각 고을 수령들이 여사(餘事)로 보고 능히 검거(檢擧)하지 못하여, 사람이 죽은 자가 있으면 장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풀밭에 버려서 해골이 드러나게 하니, 어질지 못함이 심하다…*"

조선왕조실록 성종 41권, 5년 4월 25일(기묘) 3번째 기사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상장조(喪葬條)에는, '존장(尊長)의 유언(遺言)을 따라 시체를 화장(火葬)한 자는 장(杖) 1백대에 처한다' 하였으며, 발총조(發塚條)에는, '만약 시마(緦麻) 이상의 존장의 시체를 훼기(毁棄)하는 자와 자손(子孫)으로서 조부모(祖父母)나 부모(父母)의 시체를 훼기하는 자는 참형(斬刑)에 처한다.' 하였습니다. 요즈음 무식한 무리들이 혹은 삿된 말에 현혹되고, 혹은 재물을 아껴서 부모의 시체를 불 속에 넣어서 시체를 훼손시키고 있으니…*'

또한 조선을 창건한 신진사대부들은 새로운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고려시대와는 다른 숭유억불정책(崇儒抑佛政策)을 펼침으로써, 민간에 널리 퍼져 있던 불교식 전통을 금지하고 새로운 주자학(朱子學)에 근거한 주자가례(朱子家禮)를 조선의 사회풍습제도의 기본으로 삼으려고 하였다. 조선왕조실록 태종 24권, 12년 10월 8일(경신) 4번째 기사에는 조선시대에 국왕에 대한 간쟁을 담당했던 기관인 사간원에서 불교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민가의 피해를 언급, 고려시대부터 하늘과 땅에 드렸던 제사인 원단제사를 없앨 것을 주장한 사간원의 상소의 일부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부처[佛]란 군신을 버리고 부자도 없는 부탄(浮誕)한 일이라, 망령되이 보응(報應)의 설(說)에 의탁하여 혹세 무민(惑世誣民)하고 풍속을 해치니, 오도(吾道)에 해(害)됨이 무엇이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까!...*'

또, 세종 10권, 2년(1420 경자/명 영락(永樂) 18년) 11월 7일(신미) 3번째 기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부지런히 빌어도 부처가 어떻게 그 사이에 은혜를 베풀겠는가. 엎드려 바라보니, 전하께서 유사에 명하여 상장과 제사 의식은 일체 문공 가례(文公家禮)에 의하도록 하고, 부처에 대한 일은 엄금케 하여 여러 사람의 의혹을 끊어 없애게 하라 하였고…*'

이런 사회적 흐름은 임진왜란을 지나면서 가례 및 성리학적 이데올로기가 사회재건과정에 쓰임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고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회곽묘로 대표되는 유교식 상례가 정착되었다[8,12]. 전쟁 이전에만 해도 사대부의 묘제로 인식되어 서민들 사이에 흔히 사용되지 않았던 회곽묘는, 전쟁과 함께 신분제도가 몰락하면서 계층에 관계없이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후기에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매장법으로 자리잡게 된다[13,14].

청진지구 층위분석에 관한 문헌을 살펴본 결과, 발견된 2구의 인골은 모두 조선시대 전기층인 5문화층(V층)에서 발굴되었으며 임진왜란 이전 시기의 인골로 확인되었다(Table 2). 인골이 발견된 청진지구는 옛 한양의 중심지로써, 의금부를 비롯한 관공서뿐만 아니라 전국의 재화가 조세나 공물의 형태로 모여들어 상업의 중추 역할로 기능하였던 시전행랑과 함께 주거지가 위치하였다[22]. 이곳의 발굴조사를 통해 임진왜란으로 파괴되기 이전의 조선조의 집터를 비롯한 여러 다양한 유구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23], 유구 중 우물 주변과 마루의 밑에서 조선 전기 인골이 1구씩 총 2구가 출토되었다.

유구에 대한 기록을 살펴본 결과 당시의 청진지구에는 많은 수의 우물이 존재하였다. 하지만 우물이 존재하였다는 기록만이 남아 있고[22], 우물이 지어진 시기나 그 우물의 축조 및 보수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 단, 축조 양식상 일제시대의 우물로 추정하나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아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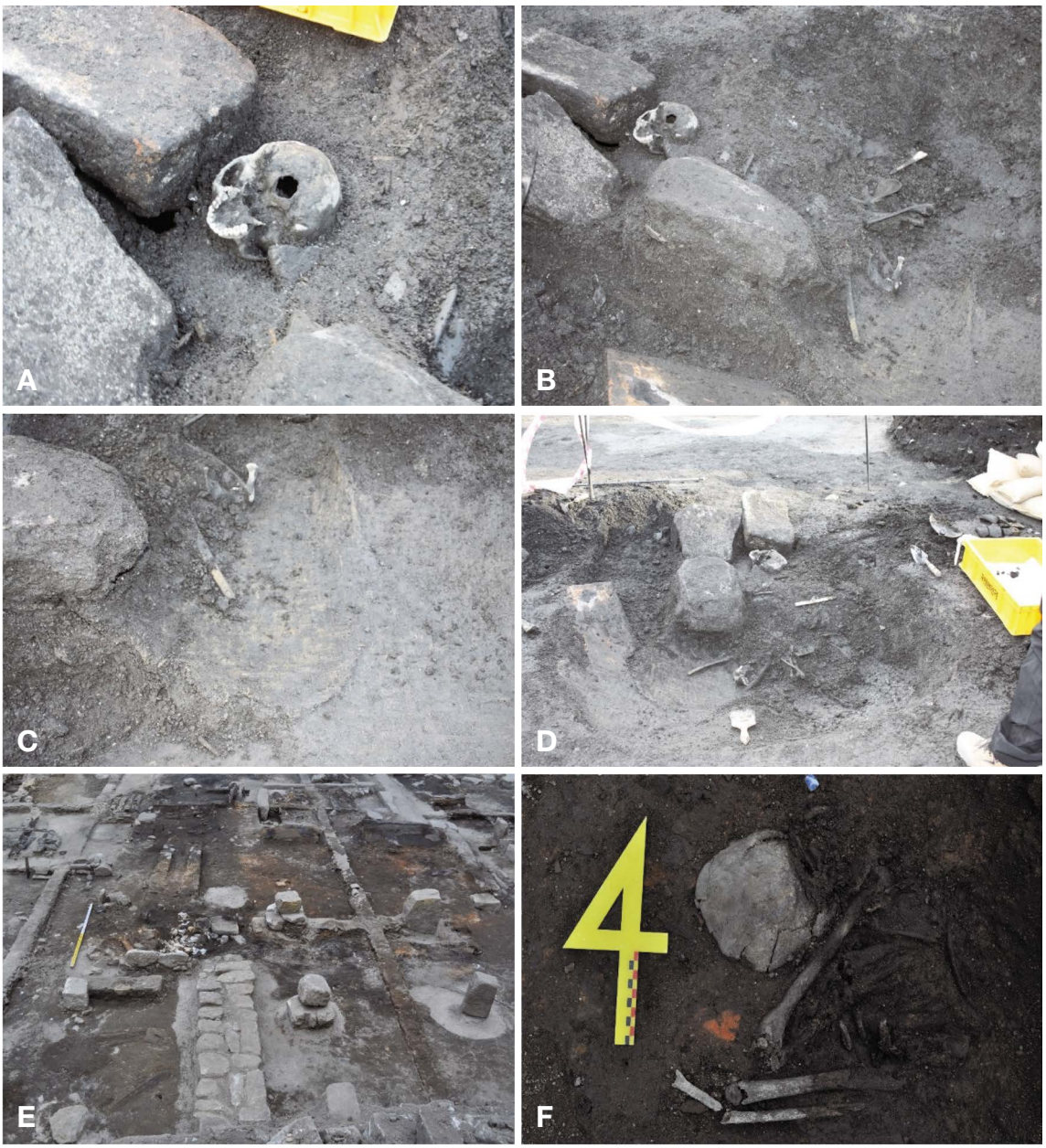

Fig. 3. These photos show the site where the human bones were excavated. A, B, C, and D showed the bones excavated from Zone 12-16. The straw mat is identified in Zone 12-16, but no other detailed relationship can be found between the straw mat and the excavated bone. E and F showed the bones excavated under the burned floor from Zone 8. The possibility of secondary interment was also investigated on the bones.

니며 우물이 V문화층까지 열려 있으므로 조선 전기 당시 처음 축조가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12-16지구의 인골은 거적과 함께 발견되었는데, 뼈들과 거적과의 위치관계는 분명치 않았다(Fig. 3). 머리뼈는 그 상태가 양호하였고 팔 및 몸통의 뼈 또한 형태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였으나 골반 뼈를 비롯한 다리의 뼈대 대부분은 소실되거나 사후 변성된 상태였다(Fig. 4a).

8지구의 인골은 탄화된 마루 밑에서 발견되었는데 청진지구 전반에 걸쳐 또한 탄화된 마루가 보고되어 있다. 당시는 화재가 빈번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는 1426년 대화재의 기록 등 여러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화재를 대비하기 위한 시설물인 우물과 같은 유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

www.kci.go.kr

Fig. 4. These are the human bones excavated from zone 12-16 nearby the well. All the vertebrae except the atlas and most bones in lower extremity could not be found in the zone.

다[22]. 또한, 본 인골이 발견된 5문화층에서 화재로 인한 황적색 소토가 두텁게 깔려 있음을 층위분석을 통해 알 수 있음으로 화재의 사실은 더욱 확증된다. 남겨진 유구로 추정하면 마루의 높이는 상당히 낮아 사람이 들어가기 힘들 정도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24]. 단, 8지구의 인골은 머리뼈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뼈들이 골절되거나 일부 소실된 상태였으므로 형태적 특징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Fig. 5).

두 인골 모두 출토 당시 각 뼈들의 위치가 해부학적 연속성이 없이 자연스럽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관절해야 할 뼈들이 분리된 상태였으므로 2차매장(secondary interment)된 상태로 판단하였다(Fig. 3).

문헌을 통해 청진지구 전반에 걸친 동물뼈의 출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22] 본 연구의 재료인 2구의 인골 중 우물가에서 발견된 12-16지구의 경우에는 총 8점의 소뼈로 추정되는 동물뼈도 함께 발견되었다. 발견된 소뼈의 대부분은 다른 지역에서 발견된 것과 같이 식용으로 도살 후에 잔존한 뼈로 추정된다.

각 인골들에 대한 체질인류학적 계측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의 계측항목을 보면 12-16지구 인골의 경우 머리뼈, 팔뼈 그리고 팔이음뼈들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계측값을 얻었으나, 다리이음뼈와 다리뼈 대부분에서는 계측값을 얻지 못했다. 8지구 인골은 모든 뼈가 온전하지 못하고 사후변성이 심해 조각나거나 소실된 상태여서 거의 계측값을 얻을 수 없었다. 연령추정에서 12-16지구 인골은 Meindle과 Lovejoy의 방법으로 머리뼈의 봉합닫힘상태를 부위별로 관찰해 시행하였고, 머리덮개뼈의 봉합선 기준으로 30.5±9.6세, 머리뼈 앞가쪽에 위치한 봉합선 기준으로 36.2±6.2세로 추정되었다(Table 4). 8지구 인골 연령추정은 발견된 홑뿌리 치아를 분석해 Lamendin이 제시한 공식에 적용한 결과 42.01세로 추정되었다(Table 5). 신장추정에서 12-16 인골은 최대 길이를 계측할 수 있었던 위팔뼈와 자뼈를 이용하여 Trotter의 공식을 적용한 결과, 각각 154.7±4.25 cm와 152.4±4.66 cm로 추정되었다(Table 6). 8지구 인골은 최대 길이를 계측할 수 있는 뼈가 없어 남아 있는 위팔뼈 몸통 길이를 이용하여 위팔뼈의 최대 길이로 간주할 수 있는 계측값을 일차적으로 마련하였고, 그것을 Trotter가 제안한 공식으로 신장추정을 하였다. 그 결과 위팔뼈 최대 길이는 293.72 mm로, 동양인 남자를 대상으로 하는 Trotter 공식에 적용해서 161.90±4.25 cm로 추정값을 얻었다(Table 7). 12-16지구 인골의 경우 Walker가 제시한 성별추정법으로 머리뼈 형태를 분석한 결과 여자로 추정되었다. 목덜미능선과 미간의 융기는 뚜렷한 여자의 형태적 특징을 보이고 있었으나, 턱끝융기는 다소 판단이 모호하였다. 단, 나머지 성별추정 판단 항목인 목덜미능선과 꼭지돌기의 형태적 특징은 보다 여자에 가까웠기 때문에 모든 항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여자로 추정하였다(Table 8). 이와 함께 위팔뼈 최대 길이는 267 mm로 계측되었는데, 1998년 Iscan이 계측한 중국인 여자 위팔뼈의 최대 길이 평균인 283.6±13.68 mm와, 일본인 여자 위팔뼈의 최대 길이 평균인 276.9±17.10 mm의 범위 안에 있었고, 중국 남자 최대 길이의 평균값인 313.7±16.46 mm와 일본 남자 최대 길이의 평균값이 297.4±10.42 mm의 범위 안에는 포함되지 않아 발굴 인골이 여자일 가능성을 더욱 높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위팔뼈 먼쪽 안쪽위관절융기가 위를 향해 솟아 있어 여자로 성별추정을 하는 데 확증을 더하였다(Fig. 6). 8지구 인골의 경우 관찰된 턱끝융기가 여자로서 뚜렷한 형태적 특징이 관찰되어 여자로 추정하였으나, 나머지 항목들은 판단이 불가하여 Hu 등[21]의 한국인 아래턱뼈를 대상으로 계측하였던 항목들로 2차적인 성별판별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 여자로 확인되었다(Table 9). 인골의 턱뼈까지 투영길이(ramus projective height)와 근육돌기

www.kci.go.kr

Table 3. Anthropometric data for excavated skeleton (mm: except angle)

Items	Zone 12-16		Zone 8	
	Left (mm)	Right (mm)	Left (mm)	Right (mm)
Maximum Cranial Length	174		ND	
Maximum Cranial Bredth	145		ND	
Bizygomatic Diameter	131		ND	
Basion-Bregma Height	134		ND	
Cranial Base Length	99		ND	
Basion-Prosthion Length	96		ND	
Maxillo-Alveolar Bredth	61.2		ND	
Maxillo-Alveolar Length	54.2		ND	
Biauricular Bredth	123.9		ND	
Upper Facial Height	73.1		ND	
Minimum Frontal Bredth	97.5		ND	
Upper Facial Bredth	101.6		ND	
Nasal Height	49.9		ND	
Nasal Bredth	27.9		ND	
Orbital Bredth	37.15	37.65	ND	ND
Orbital Height	34.1	33.2	ND	ND
Biorbital Bredth	91.6		ND	
Interorbital Bredth	22.1		ND	
Frontal Chord	109		ND	
Parietal Chord	110		ND	
Occipital Chord	94		ND	
Foramen Magnum Length	33		ND	
Foramen Magnum Bredth	28.6		ND	
Mastoid Length	35.1	33.6	ND	ND
Chin Height	33.9		30	
Height of the Mandibular body	29.4	28.8	27	27
Breadth of the Mandibular body	13.13	13.3	ND	ND
Bigonial width	98.6		97.52	
Bicondylar Breadth	125.4		110.68	
Minimum Ramus Breadth	33.8	34	33	35
Maximum Ramus Breadth	40.2	39.6	46	15
Maximum Ramus Height	ND	ND	53	55
Mandibular Length	ND	ND	89	ND
Mandibular Angle	ND	ND	118°	123°
Clavicle: Maximum Length	132	ND	ND	ND
Clavicle: Ant-Post. Diameter at Midshaft	10.28	ND	ND	ND
Clavicle: Sup-Inf. Diameter at Midshaft	8.1	ND	ND	ND
Scapula: Height	ND	145	ND	ND
Scapula: Bredth	88.3	94	ND	ND
Humerus: Maximum Length	267	ND	ND	ND
Humerus: Epicondylar Breadth	50	51	ND	ND
Humerus: Vertical Diameter of Head	36.5	ND	ND	ND
Humerus: Maximum Diameter at Midshaft	20	ND	ND	ND
Humerus: Minimum Diameter at Midshaft	13.5	ND	ND	ND
Radius: Maximum Length	197	ND	ND	ND
Radius: Anterior-postrior Diameter at Midshaft	99.6	ND	ND	ND
Radius: Medial-Lateral Diameter at Midshaft	13.8	ND	ND	ND
Ulna: Maximum Length	215	216	ND	209
Ulna: Anterior-Posterior Diameter	10.6	10.38	ND	8
Ulna; Medial-Lateral Diameter	15.3	15.3	ND	13
Ulna; Physiological Length	188	190	ND	185
Ulna; Minimum Circumference	30	ND	ND	35

*The values of measurements in median plane were recorded at left column.
*ND: Not Determined

www.kci.go.kr

Fig. 5. These are the human bones excavated under the burned floor in zone 8. The upper part of the skeleton (A) and the lower part of the skeleton (B) were observed well.

Table 4. Age estimation result of zone 12-16 excavated remain

Age estimation method: Meindl Method (1985)*			
Calvaria	Score	Anterolateral	Score
1. Midlambdoid	0	1. Midcoronal	1
2. Lambda	0	2. Pterion	1
3. Obelion	0	3. Sphenofrontal	0
4. Anterior sagittal	0	4. Inferior sphenotemporal	0
5. Bregma	0	5. Superior sphenotemporal	0
6. Midcoronal	1		
7. Pterion	2		
Total	2	Total	2

*Estimated age depends of total score from adding each region.
Calvaria (Mean age ± SD): 30.5 ± 9.6 yrs
Anterolateral (Mean age ± SD): 36.2 ± 6.2 yrs

Table 5. Age estimation result of zone 8 excavated remain*

Root height (mm)	Periodontosis (mm)	Trans. height (mm)	Age (yr)
16.00	10.19	34.88	42.01

*Estimated age yield from Lamendin's method using Tooth particle
P = (periodontosis height × 100)/root height
T = (transparency height × 100)/root height
Age = (0.18 × P) + (0.42 × T) + 25.53

높이(coronoid height), 턱뼈까지 최소너비(minimum ramus breadth)와 관절돌기 사이 최대너비(maximum bicondylar breadth) 값을 사용하였으며 모두 남녀 판별점보다 작은 범위의 값에 속하므로 성별이 여자임을 더욱 확증할 수 있었다.

고 찰

1980년대 중반이 되면서 조선시대 상·장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13], 2000년이 지나면서 조선시대 분묘군이 다

www.kci.go.kr

량 발굴 조사되어 왕릉, 민묘, 묘지석, 이중묘제 등과 같은 조선시대 묘제(墓制)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다[25]. 이처럼 분묘는 필연적으로 묘제와 함께 연구되는데, 인골들의 출토 빈도가 증가하면서 특별한 정황(odd circumstance)에 놓인 인골들이 발견되어 매장의 전후 맥락을 예측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발생하였다[9,22]. 이럴 때 특별한 상황에 대해 잘못된 해석으로 당시 시대상황에 대한 전반적 오해가 초래될 수도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도를 통해 발굴된 인골들에 대한 객관적 자료들에 근거하여 매장 정황에 최대한 올바르게 접근하고자 하였다. 첫째, 특별한 정황에서 출토된 조선시대 인골들은 법의학적 분석을 통한 정황 판단이 필요한 인골로 간주하였다. 둘째, 현장에서 수행되는 고고학적 발굴에 더하여 법의학적 정황 해석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을 법의고고학적으로 수집하고 체질인류학 및 법의인류학적 인골 검사를 통해 뼈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였다. 셋째,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고찰된 시대상황과 견주어 보며 제시된 법의학적 정황을 해석하였다. 이러한 시도가 앞으로도 발굴될 수 있는 다양한 매장 정황 아래의 인골들에 대해 그 이해의 폭을 보다 넓혀주어[1] 그간 알려져 있지 않았던 고고학적 맥락들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해 본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인골이 발견된 청진지구는 조선시대 당시 한양 도심의 한복판으로써, 많은 유구가 발굴되었다[22,23]. 발굴된 유구 중 우물과 탄화된 마루 밑에서 각 1구씩 2구의 고인골이 발견되었는데, 12-16지구에서의 인골은 우물 옆에서, 8지구의 인골은 탄화된 마루 밑에서 각각 출토되었다(Fig. 3). 조선시대 매장양식으로 회곽묘가 잘 알려져 왔으나[8,9], 인골이 출토된 두 장소는 지금까지 알려진 회곽묘 매장과 관련된 어떤 개연성도 찾기 어려웠다.

그런데 임진왜란 이전에는 유교식 상례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덜하였으며, 사회적 매장법으로 회곽묘가 자리 잡은 것

Table 6. Stature estimation result of zone 12-16 excavated remain

Bone	Side	Maximum length (cm)	Estimated sature (cm)	SEE
Ulna	Left	21.5	153.56	4.66
Humerus	Left	26.7	154.74	4.25

Estimated stature yield from Trotter (1970) equation based on east Asian males
Stature from Ulna: 3.54 × Ulna (21.5cm) + 77.45 ± 4.66
Stature from Humerus: 2.68 × Humerus (26.7) + 83.19 ± 4.25

Table 7. Stature estimation result of zone 8 excavated remain

Bone	Side	Fragmentary length (mm)	Total length** (mm)	Estimated sature*** (cm)	SEE
Humerus	Left	FrL* = 192	293.72	161.90	4.25

*FrL = The length between the point at the convergence of two areas of muscle attachment just below the major tubercle to the upper margin of the olecranon fossa
** Mothany (2012)'s method is applied to yield the total length of humers from FrL
Total length = 90.2 + 1.06 × FrL
*** Trotter (1970)'s equation for Asian male stature
Stature from humerus Humerus: 2.68 × Humerus + 83.19 ± 4.25

Table 8. Sex estimation result of zone 12-16 excavated remain*

Nuchal crest	Mastoid process	Supraorbital margin	Glabella	Mental eminence	Estimated sex**
1	2	2	1	3	Female

*Estimation sex is based on the Walker's method from Buikstra and Ubelaker (1994).
**There are 5 grade and female is estimated to be closer to 1.

Table 9. Sex estimation result of zone 8 excavated remain*

Coronoid height (X_1) (mm)	Mandibular angle (X_2)	Maximum bicondylar breadth (X_3) (mm)	Maximum condylar breadth (X_4) (mm)	Index of mandibular ramus (X_5)**	Estimated sex
55	123°	106	16	77.7	Female

*Estimation sex is based on the Hu et al. (2000) method
DF = O.383X1 + 0.157X2 + 0.319X3 − 1.937X4 + 0.251X5 − 72.950
**Index of mandibular ramus = ramus minimum breadth (mm)/ramus minimum height (mm) × 100 = 35/45 × 100

www.kci.go.kr

Fig. 6. The part of mandible (A and B) were used to the sex estimation in the human bones of the zone 8. Both the medial epicondyle on distal humerus (C) and the mandible (D) were used to sex estimation in the human bones of zone 12-16.

도 17세기 이후로 기록된다[9,13]. 다만, 조선 전기부터 국가 주도적으로 화장을 금지하고 사체유기, 풍장 등의 비유교식 상례를 단속하였으며 특히, 사회 지도층에서 유교적 질서 구현을 위해 회곽묘를 조성 및 유도하고자 했던 노력은 꾸준하였다[13]. 이와 더불어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여러 문헌들에서 당시 서민들 사이에 재물을 아끼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고 있는 매장 양식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해 우려 섞인 표현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8]. 따라서 조선 전기까지는 여러 가지 매장법이 존재했고 특히 민가(民家)에서는 다양한 매장 정황이 반영된 상례가 가능하였다고 보인다.

12-16지구와 8지구에서 발굴된 인골은 모두 5문화층위에서 발견되었다[22]. 발견된 문화층위는 출토된 유구 및 유물들로, 또 토층의 상하배열 상태 및 토질과 토색을 통해서 연대가 설정되어[26], 조선시대 전기의 층위로 확인되었다[22,23] (Table 2).

발굴된 조선 전기시대의 인골들은 서로 관절을 이룬 채 출토되어야 할 뼈들이 거리를 두고 떨어져 발견되었으며 또 일부는 소실이 명확하였다(Fig. 3). 다시 말해 출토된 뼈들이 자연스럽게 관절을 이루지 못한 상태로 발굴되었는데, 이는 2차매장으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2차매장된 후에 발굴된 인골은 필연적으로 외부의 물리적 접촉에 노출되었다고 여겨진다[7].

12-16지구와 8지구의 인골은 그 상태로 판단하건대, 일반적으로 알려진 회곽묘 축조 방식을 따라 건조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인골이 조선시대 전기의 층위에서 발굴되었으며 2차매장 상태인 이상, 당시에 비유교식 상례가 진행되던 중, 혹은 비유교식 상례의 전 후에 어떠한 이유로 더 이상 마무리되지 못하고, 매장된 인골 위로 다른 가옥이나 우물과 같은 유구가 축조되어 오늘에 이르렀다는 가정을 배제할 수 없다.

법의인류학적 검사 결과 8지구의 인골은 사망 당시 중년 여자로 특히 160 cm 전후의 신장을 소유한 인물이었다 (Tables 4, 6, 8). 이는 15~19세기 조선시대 여자 평균 키인 148.9(±4.6) cm에 비하여[27] 10 cm 이상 크다. 그런데 8지구 인골의 경우 인골이 마루 밑에서 발견되었고 마루는 다른 청진지구의 탄화된 마루와 마찬가지로 이미 탄화된 상태로 주저앉아 있었으므로[22] (Fig. 3), 탄화 후 외부인과의 접촉으로 2차매장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집과 마루가 세워지고 불에 타기 이전에 인골이 2차매장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마루 밑으로 외

www.kci.go.kr

부에서 인골을 2차매장하기 위한 진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 또한 매우 낮다고 추정한다. 기존의 문헌을 참고해 보면 당시 집이 세워질 당시의 청진지구에서 발굴된 초석이나 장대석의 높이가 30 cm 정도로 보고되는 것이 전부이며 당시 탄화된 마루들의 높이에 관한 직접적인 기록은 찾아보기 어려웠으나, 일반적으로 초석이나 장대석 위로 집이 올려지고 마루가 놓인다고 가정하였을 때[23] 마루의 높이를 최소 30 cm 안팎으로 예상하였고, 발굴 현장에서 직접 관찰된 마루 자체의 높이가 사람이 들어가 어떠한 작업이 이루어 지기에는 매우 불량하다는 보고가 있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머리뼈와 긴 뼈들이 나란히 열을 지어 발견되고 밑으로 중첩되어 있는 2차매장 정황상(Fig. 3) 인골이 먼저 묻힌 후 집이 세워졌다는 가정이 가장 자연스러워 보인다. 현재까지 한성부 중심지에 대한 토지가옥의 종류와 규모를 비롯하여 조선시대 가옥 축조에 대한 기술적 사료가 보안이 되어 당시 토지가옥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가옥이 축조된 시기와 인골이 매장된 시기와 관련하여 그 전후 관계가 확인될 수 있다면 당시의 정황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추정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16지구의 인골은 150 cm 초반의 중년 여자로, 동시대 여자의 평균신장을 소유한 인물이다(Tables 5, 7, 9). 또한 2차매장 상태의 인골임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Fig. 3). 그러나 인골 주변에서 함께 발굴된 우물의 축조 시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간의 각기 다른 의견들이 존재하였다[22]. 첫째로 본 발굴이 이루어진 우물이 일제시대에 발굴되어 사용된 흔적이 있으며 축조 방식상 일제시대 우물이라는 이유를 들어, 일제 강점기에 접어 들면서 처음 축조된 우물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가설하에서는 우물이 축조되기 오래 전, 즉 조선 전기에 인골이 매장되었고 후에 그 주변에 의도치 않게 일제시대 우물이 들어섰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조선 전기 당시 인골이 어떤 이유로 2차매장되었으나, 화재를 비롯한 역사적 사건들로 인해 잊혀지고 새롭게 그 위로 우물이 축조되었다. 실제 이는 조선 전기 1426년 대화재의 기록을 비롯하여 청진지구 자체에 잦은 화재가 있었고[22], 이후 왜란의 영향으로 시가지의 75~85%가 파괴되고 행랑이 소실되었다는 기록 등으로 뒷받침된다[23]. 둘째로, 청진지구의 다른 우물들과 같이 본 연구의 우물도 조선 전기 때에 축조가 되었고, 이후에도 이때에 만들어진 우물을 계속해서 사용하였을 주장에 대한 가능성이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골이 묻힌 상태에서 우물이 축조되었거나, 우물이 축조된 후에 인골을 묻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출토된 우물에 대한 객관적인 사료가 더해질 수 있다면 이후에 보다 논리적인 추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 태종 29권에 공동으로 우물을 파게 했던 기록을 참고하면. 이때에 우물은 여러 집이 공동으로 사용키 편리하게 위해 입지부터 선택적으로 마련하였고, 우물의 수질을 양호하게 하고 보존하기 위해 뚜껑을 설치하며, 우물을 청소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던 흔적이 있다. 앞선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았을 때 이미 인골이 묻혀 있는 지형에 우물이 축조될 가능성은 미약하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우물이 축조된 이후에 누군가 우물가에 인골을 2차매장한 상황이라 간주하면, 그 구체적 사실은 근거부족으로 추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매장자가 어떤 의지 혹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이에 대해 중종실록 권 72의 기록에 따라 사체가 우물에 수장된 이후에 발견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나, 우물의 수질을 보존키 위해 꾸준한 노력이 시도되었으므로 사체가 사람들에 의해 발견되지 않았거나 우물 속에 발견된 사체를 그대로 버려 두었다는 사실은 합리적이지 않아 보인다. 권72의 기록에는 우물 속에 수장된 사체의 경우에 사인까지 파악한 경우가 있었으므로, 그 당시 사체가 우물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이를 건져내어 이후 사법적 절차를 따랐을 것이다. 이 외에도 조선시대에는 사망 및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사건의 해결에 관여하였던 많은 기록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인골 주변에서 거적도 함께 발견되었는데. 만약 인골이 수장된 채로 발견되지 않고 남겨진 것이었다면 뼈나 사체를 마는데 쓰인 거적이 발굴 장소에서 같이 발견될 가능성은 미약해 보인다. 이처럼 인골에 대한 조선시대 전기의 시대상황을 배경으로 다양한 매장양상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하는 법의고고학적 검사가 이루어 지기 전에는 발굴 인골에 대한 사인을 추측한다는 것은 과학적 의미가 없음을 잘 보여준다.

앞으로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발굴되는 고인골을 분석할 때에는 고고학자, 고병리학자, 체질인류학자들의 폭넓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법의고고학적 분석을 시도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난제라 하더라도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사 사

본 논문의 인골 발굴과정에 많은 도움을 주셨고, 현재 고인이 되신 (재)한울문화재연구원 장진희 선생님께 깊은 애도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REFERENCES

1. Hunter J, Cox M. Forensic archaeology: advances in theory and practice. 1sted: Routledge; 2005.

www.kci.go.kr

2. Colin R, Bahn P. 1991 Archaeology: Theories, Methods, and Practice. Thames and Hudson, New York, NY.
3. Lovis WA. Forensic archaeology as mortuary anthropology. Soc Sci Med. 1992;34:113-7. https://doi.org/10.1016/0277-9536(92)90087-7
4. Connor M, Scott DD. Paradigms and perpetrators. J Hist Archaeol. 2001;35:1-6.
5. Groen WJM, Marquez-Grant N, Janaway RC. "Concluding remarks", in: Groen et al., ed 2015, 517-36.
6. Hunter J, Roberts C, Martin A. Studies in crime: An introduction to forensic archaeology. Routledge; 1996.
7. White TD, Folkens PA. The Human bone manual 1st edition: Academic press; 2005.
8. Kim SD. The culture of Korean funeral rites. 1st ed. Seoul: National folklore service; 2012. Korean.
9. Park TH. The Korean history of way in conducting funeral. 1st ed. Seoul: A publishing company Booksea; 2006. Korean.
10. Kim UR. The study of a memorial service held before the grave through Gukjo-oryeui (國朝五禮儀) and Zhu Xi's Family Rituals (朱子家禮). Hangang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09. Korean.
11. Ahn HY. Confucian funeral rites and regulation of individual action during the funeral. Society and History. 2006;73:131-67. Korean.
12. Cho GH. Burial structure of Joseon Dynasy and the Hoegyek. Central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Central Archeological Study. 2009;5:25-49. Korean.
13. Uh WS. A study on Lime-soil mixture barrier tombs in the Joseon Period: Hansin University; 2012. Korean.
14. Min SR. Research on the L.S.M.B in the Seoul and Gyeonggi Province South Korea during the middle and end of Joseon dynasty: Korea University; 2008. Korean.
15. Buikstra JE, Ubelaker DH. Standards for data collection from human skeletal remains. Arkansas archeological survey research series no. 44. Arkansas archeological survey: Fayetteville; 1994.
16. Lovejoy CO, Meindle RS. Multifactorial determination of skeletal age at death: A method and blind test of its accuracy. Am J Phys Anthropol. 1985;68:1-14.
17. Lamendin H, Baccion E, Humber JF, Tavernier JC, Nossitchouk RM, Zerilli. A simple technique for age estimation in adult corpses: the two criteria dental method. J Forensic Sci. 1992;37:1373-9.
18. Trotter M. Estimation of stature from intact long bones. Personal identification in mass disasters.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Washington DC; 1970.
19. Mohanty S, Sahu G, Das S. Estimation of length of humerus from its fragmentary portions. J Forensic Leg Med. 2012;19:316-20.
20. Rogers TL. Sex determination of adolescent skeletons using the distal humerus. Am J Phys Anthropol. 2009;140:143-8.
21. Hu KS, Koh KS, Jung HS, Kang MK, Choi BY, Kim HJ. Physical anthropological characteristics and sex determinative analysis by the metric traits of Korean mandible. Korean J Phys Anthrop. 2000;13:369-82.
22. HanU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Nine puzzle of cheongjin excavation. 1st ed. Seoul: Seoul museum of history; 2012. Korean.
23. Park HS. A study on the licensed shops (Sijeon) plan figure of 'Hanyang-Siga' in the age of chosun dynasty, focusing on the chonjin 6district unearthed remains: Myoung-Ji University; 2006. Korean.
24. Ahn SW. An archaeological perspective on status, issues and meanings of the humation. Archaeology. 2008;7:69-88. Korean.
25. Ahn KY. The Changes and Social significance of funeral courtesy on Joseon dynasty. Korea University; 1989. Korean.
26. Lee JJ, Kuak JC. Layer in archaeological site: Theory, Interpretation and practice. Sapyoung; Seoul; 2012. Korean.
27. Shin DH, Oh CS, Kim YS, Hwang YL. Ancient-to-Modern Secular Changes in Korean Stature. Am J Phys Anthropol. 2012;147:433-42.

www.kci.go.kr

간추림 : 고고학적 현장에서의 수습과 복원과정은 고고학의 이론과 원리를 적용해 발굴하지만, 인골이 발견되면 '법의고고학'이라는 법의학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법의학 현장에 고고학 기법을 적용하면 현장 주변의 지리, 환경 정보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수집해 사건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고고학적 현장에서 인골이 발견되더라도 아직까지 법의고고학적 접근을 통한 발굴과 현장 분석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울문화재연구원에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8개 구역을 발굴했는데, 이 중 청진 12-16번지의 일제시대 우물가에서 발굴한 인골 1구와 150번지의 마루 밑에서 발굴된 인골 1구를 포함해 총 인골 2구를 확인하였다. 이 조사에서 나온 인골들은 모두 조선시대 중기층인 5층(V층)에서 발굴되었다. 조선시대 이 지역은 당시 시전행랑과 관청이 밀집해 있던 상업지 및 거주지로써 고고학적으로 인골의 발견을 예상할 수 없었던 지역이었다. 더욱이 각각의 뼈대가 우물가와 마루 밑에서 각각 발견되어 그 특수한 고고학적 상황은 매장과정에 대해 왜곡된 해석들을 낳게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물가와 마루 밑의 인골을 법의학적 상황에 놓인 뼈로 인식해 문헌과 법의학적 분석으로 고인골의 매장과정을 올바르게 설명하고자 하였다.

찾아보기 낱말 : 고고학, 법의고고학, 인골, 조선시대, 우물, 마루

www.kci.go.kr